

취업주부의 시간, 에너지, 금전, 심리적 취업비용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와의 비교를 통한 접근—

Time, Energy, Monetary and Psychological Employment Cost of Working Wife
Compared to full-time housewif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문숙재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김혜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 Sook 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Hye Yeon Kim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onsumption of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s between working wives and full-time housewives and to conceptualize the cost of working wives by the degree of additional consumption of the resources. The proposed costs of working wives included the long working time (time cost), the short leisure time(energy cost), the increase of expenditures for services and the serious role conflict(psychological cost). Three methods, t-test, sim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tobit analysis were used to analyse the differences in consumption of resources between two groups. On the basis of the analysed results, the employment cost of working wives were discussed.

I. 문제의 제기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주부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업주부 혹은 취업주부는 선택적 지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부가 취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과 손실되는 비용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의 행동 동기는 궁극적으로 만족의 추구이므로 취업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혜택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Bryant, 문숙재 외, 역, 1993).

주부는 취업을 함으로써 사회적 소속감과 직업지위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자신의 능력개발, 직업적 경력(career)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에 의한 소득은 가정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생활수준 및 생활표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취업주부는 남편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경제권을 획득하고,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André,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7). 이러한 취업에 의한 혜택은 최근 주부의 취업이 보편화되고 앞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²⁾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달리 직장과 가정생활의 이중역할을 병행해야 하므로 부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소비가 요구된다. 즉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위해 자원을 소비하지만 취업주부는 자원을 보다 많이 투입해야만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자원소비를 근거로 한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자원소비를 취업비용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취

업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에 따른 상대적인 긴 노동시간의 시간비용, 둘째, 생활시간 중 이 두 노동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여가시간에 의한 에너지비용, 셋째, 가사노동을 시장재와 서비스로 해결함으로써 나타나는 상대적인 가정지출의 증가로 인한 금전비용, 넷째, 기대되는 주부역할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경험되는 역할갈등의 심리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문숙재, 김혜연, 1994; Oakley, 문숙재, 역, 1990; Hafstrom 과 Schram, 1983).

그러나 지금까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자원의 소비가 많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도 두 주부집단을 비교하여 취업비용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취업주부자신이나 가정생활의 어려움 및 문제점이 독립된 개별 주제로 다루어짐으로써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이 일부분만 파악되었고, 취업비용으로 개념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비용은 취업주부 자신의 취업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비용의 수준은 취업주부의 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업주부의 자원소비를 근거로 한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소비를 취업비용으로 개념화하고,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주부의 취업과 관련된 가정내 결정 및 이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부의 취업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혜택과 비용은 원래 생산요소의 투입과 산출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인간의 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을 혜택이라고 한다면 비용은 그러한 행동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문숙재, 김혜연, 1994).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혜택과 비용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비교대상으로 한 개념으로 취업의 혜택은 취업주부가 주부역할이외에 취업을 하였을 때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의미하는 반면, 취업비용은 전업주부로 있을 때보다 부가적으로 소비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 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 33.6%, 1986년 38.7%, 1989년 41.9%, 1992년 41.3%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3).

II. 이론적 배경

1. 취업주부의 취업비용

우리말 사전(1992)에 의하면 비용이란 원래 “살림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혹은 “어떤 생산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돈”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측면도 포함된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용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 할 때 소비해야 하는 물적, 인적 자원으로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요인을 뜻한다.

한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위해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와 달리 취업주부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이중역할을 위해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전업주부보다 더 많은 자원의 소비를 요구하며 이는 주부의 취업을 제약하는 취업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이란 주부의 노동력을 일반 노동력과 구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Ehrengerg & Smith, 1994). 취업비용의 종류와 수준을 밝히기 위해 전업주부의 자원소비와 취업주부의 자원소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간자원의 소비

취업주부는 가사노동 이외에도 직장노동을 해야 하므로 전업주부와 비교해 볼 때 전체 노동시간에 차이가 나게 된다.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수행되는 노동에 차이가 있지만, 노동의 질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면 노동에 소비한 시간은 수행된 노동의 양을 파악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노동시간을 동시에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선행연구를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주부가 가사노동에

(표 1)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노동시간

연구자	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직장노동*
	노동 요인	가사노동		가사노동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최명숙(1987)		8.5	6.8			
문숙재 외(1991)		11.3	9.7			
안순덕 외(1991)		6.4	5.9	4.5	5.0	7.7
이연숙 외(1991)				3.2	5.8	
한경미(1991)				3.6	6.6	10.0**
조희금(1993)***						11.5**
이기영 외(1994)		8.3	5.7	3.5	5.4	8.3
Szalai(1972)				4.0		5.1
Bullock et al(1974)				3.5		5.0
Robinson(1977)				4.2		4.2

* 평일의 임금노동시간

** 출·퇴근시간포함

*** 생산직 근로자

소비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6-11시간 정도인 반면, 취업주부는 평균 4-7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부 및 외국의 주부 모두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이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지만, 취업주부의 임금노동시간, 직장출·퇴근시간 등을 포함시킨다면 취업주부는 평일에 10-15시간의 긴 노동시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전체 노동시간은 전업주부보다 많아지게 된다. 외국주부의 직장노동시간은 우리나라의 주부와 비교할 때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에너지자원의 소비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부담은 생활시간에 있어서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게 한다. 따라서 취업주부는 부족한 가사노동 시간을 위해 여가시간을 조절하게 하므로(Strober & Weinberg, 1980) 전업주부보다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 이러한 휴식시간의 부족은 노동력의 충전, 즉 소비된 에너지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Rice & Tucker, 문숙재 외, 역, 1990).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여가시간 비교

(단위:시간)

연구자	주부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안순덕 외(1991)		7.4	7.7	2.9	5.0
한경미(1991)				1.6	4.2
이기영 외(1994)		5.8	6.2	2.3	3.9
Szalai(1972)				4.4	
Bullock et al(1974)				4.6	
Robinson(1976)				5.0	
Nickols et al(1983)				3.7	

여가시간에 대한 분류와 개념이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은 취업주부에 비해 약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취업주부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평일 여가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금전자원의 소비

주부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남편 이외의 추가소득에서 비롯된 구매력의 증가와 주부의 취업과 관련된 지출이 초래됨으로써 주부의 취업이 가정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우기 취업주부는 취업주부로 인한 가정내 부채와 시간제약으로 인해 전업주부와는 다른 부가적인 소비가 있게 된다. 즉 취업주부는 시간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체관계에 있는 금전을 이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취업주부는 시간집약적이기 보다는 재화집약적인 방식에 의해 가사노동을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Ehrenberg & Smith, 1994).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주부는 시장재와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데, 특히 취업주부 가정의 외식 및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와 관련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식비의 경우 Dardis, Derrick와 Lehfeld(1981)에 따르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취업주부 가정이 전업주부 가정보다 지출이 많았다. Bellante와 Foster(1984)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Vickery(1979)도 소득, 자산, 자녀의 연령과 수, 가족생활주기단계 등을 통제했을 때 취업주부 가정의 외식비가 더 많았다고 하였다. 반면 Redman(1980)에 따르면 취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간의 외식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Goebel & Hennon(1983)도 주부의 취업이 외식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부가 취업하였을 때 외식비가 증가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취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의 지출차이는 보다 분명한 경향이 있다. 취업주부 가정의 자녀양육형태는 친척에 맡기는 것에서부터 보모,유모

등을 이용하거나 탁아기관, 사설기관 등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출에 차이가 있게 된다. Bellante와 Foster(1984)는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 간의 지출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Yang과 Magrabi(1989)도 주부의 취업시간과 자녀양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전업주부 가정보다 취업주부 가정의 지출이 더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Schwenk(1986)는 전업주부 가정의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전체 지출비 중 2%에 불과한 반면,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에는 6%에 달하므로 취업주부 가정의 가장 큰 금전비용은 자녀양육서비스비라고 주장하였다. Hanson(1991) 역시 취업주부 가정의 금전비용을 조사하면서 자녀양육서비스의 구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심리적 자원의 소비

취업주부는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주부가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나 실제 역할수행은 비교적 느린 변화를 보인다. 더우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주부 자신도 자신의 역할이 전업주부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Lopata, 1971). 즉 취업주부는 주부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주관적, 객관적 역할기대와 실제적인 역할수행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일치되지 않을 때, 역할을 과중하고, 복잡, 다양하게 느낄 때,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역할갈등을 겪게 된다(Voydanoff & Kelly, 1989). 이와 같이 취업주부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 친척이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거나 주부 스스로 심리적 부담을 느낌으로써 심리적 자원의 소비를 가져오며 이는 역할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동원(1976)의 연구에서 여성의 취업중단 이유중 60%이상이 출산, 자녀양육, 임신, 결혼 등의 가정내 역할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발전을 위

해 취업한 사람도 가정경제만 허락한다면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취업여성의 직업적 역할과 가정적 역할간에 상당한 갈등적 요소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특히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녀양육문제는 주부의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Pleck, 1985). 이 밖에 Robinson(1977)에 따르면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주부자신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전업주부 역시 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업주부로서의 주부역할을 보다 완벽하게 하려는 데에서 비롯되므로 전통적인 주부역할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는데에서 기인하는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비해서 그 인식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2. 관련변수의 고찰

가. 주부의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이 높아지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Gronau, 1977).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인 전문기술직의 직장노동시간은 생산 및 단순노무직의 노동시간보다 적으므로 취업주부의 교육수준은 노동시간자원의 소비와 부적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욕구와 참여가 증가하므로(Robinson, 1977) 취업주부의 여가 시간자원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는 시장서비스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며, 실제로 외식이나 자녀양육서비스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Abdel-Ghany & Foster, 1982; Bellante & Foster, 1984) 취업주부의 금전자원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주부일수록 가정과 직장 생활의 표준이 높고, 이 두 영역에서 모두에서 성공하려는 'super woman'역할에 부응하려고 하므로(Ferree, 1987) 역할갈등의 심리적 자원부담이 더 높을 수 있다.

나. 자녀수와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 특히 6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양과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알려져 있다. 즉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Sanik, 1981) 취업주부의 노동시간자원의 소비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관련 특성은 가정 일의 책임과 더불어 주부가 시간제 취업을 선호하게 함으로써(Borchost & Siim,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9) 노동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Gronau(1977)에 따르면 자녀수, 특히 학령전 자녀의 존재는 주부의 여가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Nickols와 Abdel-Ghany(1983) 역시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주부의 시간수요와 경쟁관계에 있는 여가시간이 적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취업주부의 휴식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지출은 주로 자녀양육서비스비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녀양육의 문제는 취업주부의 심리적 자원의 소비와 관련된 역할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wenk, 1986; Pleck, 1985).

다. 소득

소득이 충분할 경우 주부는 가정생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가 용이하므로 소득은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촉진요인(facilitator)으로 기능한다. 또한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의 취업이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강제적인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Eggebeen & Hawkins, 1990) 장시간의 근무시간을 요하는 직장을 피할 수 있어서 노동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여가의 경우 소득은 여가시간보다는 여가의 질을 높여주므로(Strober & Weinberg, 1977)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분명하지 않다. 또한 소득은 가정의 시장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주부의 취업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일 때 취업주부의 금전자원의 소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김혜연, 1995; Volker & Winter, 1988). 한편 경제적 압박보다는 자기발전

도모나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취업한 주부가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하므로(강성희, 1989)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적어질 수 있다.

라. 가족유형

일반적으로 가족의 크기와 가사노동의 양은 정적관계에 있지만, 확대가족일 경우 가사노동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커지므로 가족유형이 취업주부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Skinner(1980)는 핵가족의 경우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장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취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위임에 있어서 편리성, 신뢰성, 지속성의 조건을 고려할 때 확대가족의 형태를 취하기 쉽다(김현옥, 1988). 김혜연(1995)에 따르면 핵가족일 때 외식비가 많았지만,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대행에 대한 사례금은 지불되지 않음으로써 취업에 따른 금전자원의 소비가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확대가족은 주부의 취업에 대한 지지적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만일 가족성원이 주부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취업주부의 심리적 비용은 높아질 수 있다(Ratcliff & Bogdan, 1988).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가. 종속변수

첫째, 취업주부의 시간비용은 부가적인 노동시간 자원의 소비를 통해 파악되므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노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이 때 전업주부의 노동시간은 가사노동만을 의미하는 반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 직장 출·퇴근시간, 직장노동시간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간의 소비는 각각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가사노동은 문숙재(1988)의 분류에 따라 각 영역을 구분하였다. 둘째, 취업주부의 에너지비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가시간자원의 소비이므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여가시간을 조사하여 파

악하였다. 여가시간의 구분은 홍성희(199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하루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묻는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취업주부의 금전비용은 취업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가정되는 외식비와 자녀양육서비스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전업주부 가정과 취업주부 가정의 외식과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한달 평균 지출비를 조사하였다. 자녀양육서비스는 일반 가사서비스와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혈연관계의 친척으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사례금, 선물 등은 취업에 의한 지출이므로 (Schwenk, 1986) 문항에 포함시켰다. 넷째, 취업주부의 심리적 비용은 취업주부가 부가적으로 경험하는 역할갈등을 의미하는데, 역할갈등에 관한 문항은 Voydanoff와 Kelly(1984), 강성희(1988)의 연구를 참고로 이상적인 아내, 어머니, 가정관리자로서의 주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s α 값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78이었고, 전체 주부의 경우에는 .81이었다.

나. 설명변수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주로 양적 변수인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가족유형, 주부의 취업여부가 포함되었다. 이 때 주부의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는 취업주부=0, 전업주부=1, 가족형태는 핵가족=1, 확대가족=0으로 처리하여 가변수화하였다.

2. 분석방법

전업주부와 비교된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소비, 즉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은 3가지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첫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원소비의 차를 t-test에 의해 검증하였으며, 둘째, 주부의 취업유무가 자원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Simple Regression에 의해 파악하였다. 셋째, 제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원소비를 각각 예측한 후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시간, 에너지, 심리적 자원의 소비에 미치는 제독립변수의 영향력은 각각 OLS방식에 의한 Multiple regression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금전자원의 소비는 지출을 하지 않는 경우의 0값에 의한 표본절단(censored)으로 인해 Tobit analysis를 통해 예측되었다. 분석에 앞서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3.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서 모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한정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주부의 생활시간과 생활내용 및 가정지출에 영향을 주므로 첫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가정내 부업가정, 남편과 같이 자영업을 하거나 가정과 직장이 맞붙어 있는 자영가정은 제외하였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비교를 위해 각 집단의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였고, 서울을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의 4지역으로 나누어 동일지역에서 층화표집방법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1994년 11월 7일에서 11월 15일까지 전업주부 100명, 취업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995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면접에 의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업주부 364명, 취업주부 348명을 조사하였고, 그 중 전업주부 339명, 취업주부 313명, 총 652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3>과 같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주부의 자원소비에 대한 t-test분석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원소비를 비교함으로써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는 <표 4>-<표 7>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전업주부 N=339, 취업주부 N=313, 전체 N=652)

변수	주부 분포			주부 분포 변수	전체		
	전업주부 빈도 %	취업주부 빈도 %	전체 빈도 %		전업주부 빈도 %	취업주부 빈도 %	전체 빈도 %
자녀수				막내연령			
1명	86 25.4	145 46.3	231 35.4	4세이하	77 22.7	147 47.0	224 34.4
2명	225 66.4	159 50.8	384 58.9	5-7세	83 24.5	54 16.6	135 24.7
3명이상	28 8.2	9 2.9	37 5.7	8-13세	114 33.6	74 23.6	188 28.8
				14세이상	65 19.2	40 12.8	105 12.1
가정소득				주부직업			
101이하	62 18.3	6 1.9	68 10.4	단순직		9 2.9	9 1.4
101-150	111 32.7	30 9.6	141 21.7	고용직		48 15.3	48 7.4
151-200	101 29.7	85 27.2	186 28.5	자영업		68 21.7	68 10.4
201-250	28 8.3	69 22.9	97 14.9	사무직		89 28.4	89 13.7
251-300	26 7.7	64 20.5	90 13.8	기술직		76 24.3	76 11.7
301-350	2 0.6	21 6.7	23 3.5	관리직		23 7.3	23 3.6
351-400	2 0.6	18 5.7	20 3.1	고위직		0 0.0	0 0.0
401이상	7 2.1	20 6.5	27 4.1				
교육수준				가족유형			
중졸이하	44 13.0	23 7.3	67 10.3	핵가족	309 91.2	274 87.5	583 89.4
고졸	185 54.6	142 45.4	327 50.2	확대가족	30 8.8	39 12.5	69 10.6
대졸	106 31.5	142 45.4	248 38.0				
대학원이상	3 0.9	7 2.2	10 1.5				

〈표 4〉 주부의 시간자원소비

(단위:신명)

노동시간자원	전업주부				취업주부				t값
	평균	휴일	M	SD	평균	휴일	M	SD	
노동시간자원									평균의 t값
가사노동시간	10.4	10.4	10.2	2.0	5.6	10.1	6.0	1.5	30.79***
출퇴근시간							1.2	0.7	
직장근무시간					8.2	1.3	7.2	1.6	
직장노동시간					9.4	2.5	8.4	4.0	
총노동시간	10.4	10.4	10.2	2.0	15.0	12.6	14.4	2.8	-29.77***

@ 평일 시간=(평일+토요일)/6, 휴일 시간=일요일, 평균시간=(평일+휴일)/7

@ 직장노동시간=(출퇴근시간+직장근무시간)

*** P < .001

〈표 5〉 주부의 에너지자원소비

(단위:시간)

에너지자원	전업주부				취업주부				t값
	평일	휴일	M	SD	평일	휴일	M	SD	평균의 t값
여가시간	4.0	3.7	4.0	1.6	1.6	3.1	1.8	0.9	21.69***

@ 평일 시간=(평일+토요일)/6, 휴일 시간=일요일, 평균시간=(평일+휴일)/7

*** P < .001

〈표 6〉 주부의 금전자원소비

(단위:만원)

금전자원	전업주부					취업주부					t값
	25%	50%	75%	M	SD	25%	50%	75%	M	SD	평균의 t값
외 식 비	3.0	5.0	10.0	7.1	7.2	5.0	7.0	10.0	8.7	7.7	-2.65***
자녀양육비@	0.0	0.0	6.0	5.6	9.2	0.0	0.0	24.3	21.9	23.6	-11.42***

@ 탁아방, 유치원, 유아원, 가정부, 파출부, 보모 등에 대한 지출비와 친척, 이웃의 도움에 대한 사례비 및 선물비가 포함되었음

*** P < .001

가. 시간자원

전업주부의 평일과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은 각각 10.4시간이었고,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0.2시간이어서 문숙재, 정영금(199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5.6시간에서 10.1시간으로 평일보다 휴일에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시간이 평일보다 휴일에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이기영, 이승미(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취업주부가 평일의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휴일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직장노동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업주부와 동일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취업주부의 출퇴근시간과 직장근무시간에 의해 파악한 직장노동시간은 직장의 위치와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평균 8.4시간이었다. 따라서 직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취업주부의 총노동시간은 14.4시간이었다.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주부의 노동시간은 우리나라 일반 산업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7.6시간(통계청,

1993)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전업주부보다 적지만 총노동시간은 많았던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나. 에너지자원

전업주부는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각각 4.0시간과 3.7시간이었으며 평균 여가시간은 4.0시간이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은 평일에 비해 휴일에 약 2배 정도 늘어나지만, 전업주부의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두 주부집단의 여가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전업주부와 비교할 때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금전자원

식생활 영역에서 외식의 경우 전업주부 가정의 25%는 3만원을 지출하며, 또 다른 25%는 10만원 이

상을 지출하였는데, 한달 평균 외식비는 7만원 정도였다. 한편 취업주부 가정의 외식비 지출분포는 약간 높아서 25%는 5만원을, 또 다른 25%는 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 가정의 한달 평균 외식비는 약 9만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평균 외식비인 10만원(김상영, 199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부의 노동부담과 휴식의 부족을 나타내주는 시간자원과 에너지자원의 소비와 비교할 때 취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의 금전자원의 소비는 가정에 따라 편차가 큰 경향이 있었다. 더우기 외식비에 비해 자녀양육비의 편차가 더 큰 편이었다. 한편 전업주부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자녀양육을 주부가 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이 적지만,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주부의 시간계약으로 인해 이 영역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지출상에 편차가 큰 편이며, 취업주부 가정에서도 75%가 자녀양육비의 지출이 없었다는 것은 자녀가 성장한 경우를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지출이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가정의 노력을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외식비와 자녀양육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7) 취업주부의 심리적 비용

(단위:점수)

심리적 비용	주 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t값
	M	SD	M	SD	M	SD	
역할갈등	23.7	4.7	28.7	4.6			-13.81***

(최소-최고범위:9점-45점, 중간점수:27점)

*** P < .001

라. 심리적 자원

중간점수인 27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업주부는 평균 23.7점의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는 반면, 취업주부는 평균 28.7점의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갈등 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취업주부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에서 역할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원소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주부의 취업여부가 주부의 시간, 에너지, 금전, 심리적 자원소비에 대해 갖는 관계 및 영향력을 통해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른 회귀계수(B)값은 주부의 취업여부에 의해 증가하게 되는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자원소비, 즉 취업비용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부의 취업여부는 주부의 시간 소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시간자원 및 에너지자원의 소비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았던 주부의 자원소비는 금전자원 중 외식비였다. 전업주부는 여가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에너지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가사노동의 노동시간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은 총 노동시간 뿐 아니라 그밖의 자원소비, 즉 에너지, 금전, 심리적 자원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으로써 취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부의 취업여부가 주부의 부가적인 자원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이었다.

3. 주부의 특성에 따른 자원소비에 대한 중회귀분석 및 Tobit분석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모두 포함하여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부의 자원소비를 분석함으로써 취업주부의 비용을 예측하고자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9>-<표 12>와 같다. 그러나 금전자원의 소비에 대한 예측은 표본절단(censored)으로 인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Tobit분석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원소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

주부의 비용	회귀계수 B (β)	상수	R ²
가사노동시간	252.327(.767) ***	610.910	.588
총노동시간	-251.096(-.757) ***	610.910	.573
여가시간	130.219(.640) ***	237.869	.410
외식비	-1.546(-.103) ***	8.690	.011
자녀양육서비스비	-16.298(-.419) ***	21.891	.176
역할갈등	-5.075(-.478) ***	28.744	.229

*** P < .001

가. 시간자원

전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주부의 취업여부였다.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와 같은 자녀관련변수였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며, 자녀수와 가사노동시간은 정적 관계를 보여 Sanik(198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편 취업주부의 직장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주부의 교육수준이었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주부의 직장노동시간이 길어졌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주부의 총노동시간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나 취업에 의해 주부의 노동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에너지자원

주부의 취업여부는 주부의 여가시간에 대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내 자녀의 존재 및 연령은 주부의 시간사용내용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경미(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9〉 주부의 특성에 따른 시간자원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주부	전체주부	취업주부	전체주부
	시간 B(β)	가사노동시간 B (β)	직장노동시간 B (β)	총노동시간 B (β)
막내연령		-5.011(-.150)***	2.832(.142)*	-3.611(-.058)
자녀수		25.773(.091)***	-8.797(-.049)	24.599(.103)*
주부교육수준		-1.230(-.018)	-5.752(-.136)*	-4.145(-.144)*
가족유형		-6.438 (-.112)	-22.476(-.074)	-20.775(-.034)
소득		.032(.019)	-.036(-.038)	.006(.003)
주부취업유무		257.787(.784)***		-254.021(-.762)***
상수		621.690	608.027	666.787
R ²		.612	.053	.592

* P < .05, *** P < .001

〈표 10〉 주부의 특성에 따른 에너지자원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에너지자원 변수	여가시간	
	B	(β)
B(β)		
막내연령	5.378(.261)***	
자녀수	-11.983(-.068)*	
주부교육수준	3.720(.087)***	
가족유형	7.502(.023)	
소득	.017(.017)	
주부취업유무	126.641(.623)***	
상수	621.690	
R ²	.612	

* P < .05, *** P < .001

다. 금전자원

가정의 외식비 및 자녀양육서비스비에 대해 주부의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쳤지만, 가족유형이 미치는 영향도 컸다. 외식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유형이 핵가족일 때, 주부가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 가정의 외식비가 전업주부 가정의 지출보다 많았다는 Nickols와 Fox(198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자녀양육서비스비는 모든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주부로 있을 때 유의하게 지출이 감소하였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서비스는 자녀가 많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서비스비에 있어서 자녀관련변수와 소득을 강조한 선행연구(김혜연, 1995; Schwenk, 1986)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부의 교육수준과 자녀양육서비스비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자녀양육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는 Abdel-Ghany와 Foster(1982)의 주장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유형이 핵가족일 때 자녀양육서비스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확대가족의 가족유형일 경우 자녀양육을 대신해주며, 그에 따른 지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주부의 특성에 따른 금전자원에 대한 Tobit분석 결과

금전자원 변수	외 식 비		자녀양육서비스비	
	B(SE)	B(SE)	B(SE)	B(SE)
B(SE)				
막내연령	-.025(.064)		-2.838(.240)***	
자녀수	.717(.531)		2.806(1.824)*	
주부교육수준	.142(.135)		1.926(.462)***	
소득	.032(.003)***		.074(.011)***	
가족유형	1.516(.955)*		6.194(2.895)**	
주부취업유무	1.092(.955)*		-14.185(2.228)***	
상수	1.665		-29.809	
Log Likelihood	-2101.903		-1792.289	

* P < .10, ** P < .05, *** P < .01

라. 심리적 자원

주부의 심리적 역할갈등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주부의 취업여부였으며, 막내자녀의 연령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이중역할의 부담으로 인해 역할갈등을 겪게 되며, 이는 자녀와 관련된 것이 많게 된다. 따라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부의 역할갈등이 적어지는 결과는 취업주부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문제임을 지적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oydanoff & Kelly,1984).

4.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

지금까지 실시된 주부의 비용에 대한 3가지 분석, 즉 t-test, 단순회귀분석, 중회귀분석 혹은 Tobit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비용을 계산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취업비용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Y는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자원의 소비, 즉 취업비용을 의미하며, X는 주부의 취업여부나 막내자녀의 연령 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 독립변수를 뜻한다. 이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한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의 평균을 사용하여 얻어졌

〈표 12〉 주부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자원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심리적자원	역할갈등
	B(β)	B(β)
막내연령		-0.76(-.071)*
자녀수		-.524(-.057)
주부교육수준		.010(.005)
가족유형		.463(.027)
소득		-.001(-.027)
주부취업유무		-4.902(-.462)***
상수		24.971
R ²		.240

* P < .05, *** P < .001

다. 그러나 가족 형태의 경우 본 연구대상자가 핵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므로 가족의 유형이 유의한 변수였을 때는 가족유형을 핵가족으로 가정하였

다.

(1) 분석방법 : 평균의 차, $y = (\text{취업주부의 자원소비} - \text{전업주부의 자원소비})$

(2) 분석방법 : 단순회귀분석, $E(y) = a + b_1X_1$

(3) 분석방법 : 중회귀분석 및 Tobit분석

① 중회귀분석시 $E(y_i) = a + bx_i$

② Tobit분석시 $E(y_i | y_i > 0) = \beta x_i + \sigma \frac{\phi_i}{\Phi_i}$

여기에서

$$\Phi_i = F_i = \int_{-\infty}^{\beta x_i} \frac{1}{\sigma} e^{-t^2/2} dt$$

$$\phi_i = \frac{1}{\sigma} e^{-(\beta x_i)^2/2\sigma^2} \quad (\text{Greene, 1993})$$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현재 자원소비 및 분석방법에 따라 추정된 각 자원소비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부

〈표 13〉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취업비용의 종류	분석방법	(1)	(2)	(3)
	주부집단	(취업, 전업) 취업비용	(취업, 전업) 취업비용	(취업, 전업) 취업비용
시간비용				
가사노동시간		(6.00, 10.20) 4.20-	(10.18, 14.39) 4.21-	(10.50, 14.74) 4.24-
총노동시간		(14.40, 10.20) 4.20+	(10.19, 6.00) 4.18+	(10.82, 6.75) 4.06+
에너지비용				
여가시간		(1.80, 4.00) 2.20-	(3.96, 6.13) 2.17-	(10.68, 13.65) 2.97-
금전비용				
외식		(8.69, 7.14) 1.60+	(8.69, 7.14) 1.55+	(10.08, 8.48) 1.60+
자녀양육서비스비		(21.89, 5.59) 16.30+	(21.89, 5.59) 16.30+	(27.14, 9.09) 22.05+
심리적비용				
역할갈등		(28.74, 23.72) 5.02+	(28.74, 23.67) 5.08+	(24.49, 19.43) 5.06+

@ 전업주부를 기준으로 취업주부의 자원소비가 많으면 +, 적으면 -로 표시

가적인 비용의 정도는 거의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주부가 취업을 할 경우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4.2시간 감소하지만, 직장노동시간으로 인해 오히려 4.2시간의 노동시간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여가시간은 전업주부에 비해 2.2시간이 적어진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적어지는 여가시간은 취업주부의 이중역할과 그에 따라 생활시간이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주부의 취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논의되고 있는 시장서비스비 중 외식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약 2만원 정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녀양육서비스비는 외식비에 비해 전업주부 가정과 취업주부 가정의 지출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취업을 위한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업여부에 의한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취업주부 가정은 16만 5천원을 더 지출하며, 자녀, 소득, 주부의 교육수준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모두 고려한다면 약 22만원 정도의 부가적인 지출이 요구된다. 한편 이와 같은 시간, 에너지, 금전자원이 부가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5-6점 정도의 역할갈등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부가 취업을 위해 전업주부로 있을 때와는 다른 부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소비가 요구되므로 이를 취업비용으로 개념화하고,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에는 노동시간비용, 에너지비용, 금전비용, 심리적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t-test, 단순회귀분석, 중회귀분석 및 Tobit분석에 의해 자원소비의 차이를 검증하고 예측하였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자원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는 자원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 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자원소비 및 그에 따른 가정생활의 복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노동시간, 여가시간 및 역할갈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와 같은 자녀관련 변수였다. 또한 외식비의 경우에는 주부의 취업여부 이외에 소득, 가족유형등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으며, 자녀양육서비스비는 자녀관련변수, 주부 교육수준, 소득, 가족유형 등의 모든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회귀계수와 Tobit 함수에 의해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비용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취업주부의 증가된 노동시간비용은 약 4시간이었으며, 약 2시간 정도 감소하는 여가시간으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높아졌다. 또한 취업주부는 약 1.5만원 정도의 외식비를 더 지출하며, 자녀양육을 위해 약 22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는 금전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간, 에너지, 금전의 측면에서의 부가적인 자원의 소비 이외에도 취업주부는 역할갈등의 심리적 갈등을 전업주부에 비해 5점 정도 더 경험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취업주부가 이중역할의 부담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전업주부 역시 힘든 역할이지만, 취업주부는 그 이외에 직장에서의 노동까지도 부담해야 하는데에서 부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소비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이중역할의 부담 정도를 전업주부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취업주부의 부가적인 자원의 소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은 가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의 주된 동기가 가정의 생계와 소득수준의 향상이므로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주부의 취업을 통한 가정소득의 확대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주부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더불어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의 문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제품이나 사회시설이 용이하지 않고, 혹은 가격이 비싼 것은 취업주부가 취업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가정과 사회의 노력을 위해 앞으로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에 대한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개념화 정립과 취업주부의 취업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모델의 구성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성희(1988),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성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상영, 도시근로자가구, 동아일보, 1995년 3월 24일, 13면.
- 3) 김현옥(1986), 취업모의 탁아형태 변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문숙재(1988), 가정생산, 서울 : 신광출판사.
- 6) 문숙재, 김혜연(1994),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주부직의 혜택과 비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15-29.
- 7) 문숙재, 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 131-150.
- 8) 안순덕 외(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9) 우리말큰사전(1992), 서울 : 어문각.
- 10) 이기영, 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11-26.
- 11) 이동원(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논총, 27.
- 12) 이연숙 외(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1.
- 13)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 101-112.
- 14) 최명숙(1987),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통계청(1993), 한국통계연감, 경제기획원.
- 16)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9, 171-190.
- 17) 홍성희(1990),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André, R, 한국여성개발원(역)(1987), 가정주부, 한국여성개발원.
- 19) Borchost, A. & B. Siim, 한국여성개발원(역)(1989), 여성과 선진 복지 국가, 여성과 국가,
- 20) Bryant, B.C. 문숙재 외(역)(1993), 가정경제, 서울 : 한올아카데미.
- 21) Oakley, A, 문숙재(역)(1990), 가사노동의 사회학, 서울 : 신광출판사.
- 22) Rice, A.c. & S.M.Tucker, 문숙재, 김정옥(역)(1990), 가정자원관리, 서울:동명사.
- 23) Abdel-Ghany, M. & A.C. Foster(1982),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21-28.
- 24) Bellante, D. & A.C. Foster(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s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25) Bullock, N.D.et al(1974), Time budgets and models of urban activity patterns, Social Trends, 5, 45-63.
- 26) Dardis, R.D. & A.Lehfeld(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 A cross-section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212-222.
- 27) Eggebeen, D.J. & A.J. Hawkins(1990), Economic need and Wives's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1, 48-67.
- 28) Ehrenberg. R.G. & R.S. Smith(1985), Modern labor economics, Illinois : Scott,Foreman and Company.
- 29) Ferree, M.M.(1980), Satisfaction with housework : The social context, Wome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 Sage pub, 5, 89-112.
- 30) Goebel, K.P. & C.B. Hennon(1983), Mother's

- time on meal preparation,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shared meals :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and age of uounger child', *HERJ*, 12, 170-188.
- 31) Greene, W.H.(1993), *Econometric Analysis, USA* : Macmillan Pub. Company.
- 32) Gronau, R.(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099-1123.
- 33) Hafstrom, J.L. & V.R. Schram(1983), House-work time of wives :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ERJ*, 11, 245-254.
- 34) Hanson, S.L.(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22-634.
- 35) Lopata, H.Z.(1971), *Occupation : Housewif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36) Nickols, S.Y. & M.D. Fox(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37) Pleck, J.H.(1985), Wives' desire for greater husband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 Sage pub.
- 38) Ratcliff, K.S. & J. Bogdan(1988), Unemployed women : When 'social support' is not supportive, *Social Poblems*, 35, 54-63.
- 39) Redman, B.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mics*, 62, 234-237.
- 40) Robinson, J.P.(1977), *How american use time :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Y : Praeger press.
- 41)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1967 1977, *HERJ*, 10, 175-180.
- 42) Schwenk, F.N.(1986), Child care arrangements and expenditures, *Family Econmics Review*, 4, 1-11.
- 43) Skinner, D.A.(1980), Dual-career family stress and coping :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oct, 183-194.
- 44) Strober, M.H.(1977),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 *American Economic Review*, Feb, 410-417.
- 45) Szalai, A.(1972), The use of time :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r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The Hague : Mouton*.
- 46) Vickery, c.(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in R.E. Smith(ed), *The subtle revolution : Women at work*, Washington DC :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99-124.
- 47) Volker, C.B. & M. Winter(1988), Secondary household production of food : The influence of home meal preparation of food expenditure and reported adequacy, *JCSHE*, 12, 321-340.
- 48) Voydanoff, P.(1989), *Work and Family-A Review and Expanded Conceptualization*, Work and Family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49) Yang, S.J. & F.M. Magrabi(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ERJ*, 18, 133-147.